제4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발표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공모 당선작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는 특별상으로 관음종 총무원장상을 더 제정해 모두 7점의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총71점이 접수돼 예년에 비해 참여도가 줄었습니다만, 정성들여 응모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상(유마상)

우리집에 오신 부처님

류화순 (광주시 광산구 송정2동)

◇현대불교신문사장상

나를 일깨워 주신 부처님

원만심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발없는 발로 손없는 손으로

윤순복 (경북 영주시 휴전3동 주공A)

◇특별상(종단협의회장상)

작은 실천 큰 기쁨

김민자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장미A)

◇특별상(천태종총무원장상)

저 언덕을 향하여

정유경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특별상(관음종총무원장상)

나의 탈바꿈

조향숙 (대구시 달서구 본동 그린맨션)

◇특별상(진흥원이사장상)

사섭법을 애인삼아

양보리심 (고양시 마두동 880-15)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는 참가상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시상식 추후통보〉

우리집에 오신 부처님

류화순

그림 · 문병성

"항상 가정과 남을 먼저 생각하라" 법문에 감동 고객을 나처럼…

결혼한 지도 32년….

친가에서 자랄 때는 가난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나는 어느 아주머니의 중매로 결혼, 9남매의 둘째 며느리가 되었다.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다가 1970년 여름에 1만7천원 하는 월세 가게 방 한칸을 얻어 다섯 식구가 분가하게 되었다. 이사가서 보니 낡은 집이라 비만 오면 지붕에서 빗물이 줄줄 흘러서 세숫대야로 받쳐 두어야 하고 벽은 전체가 흙벽이어서 문만 크게 닫으면 벽에서는 미끄럼을 타듯이 흙이 흘러내리는 소리에 밤에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분가할 때 시어머니께서 주신 얼마 되지 않은 쌀을 아껴 먹는다고 해도 어찌나 빨리 줄어드는지 다섯 식구가 살아갈 일이 막막하였다. 가장인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이고 고민만 하고 있어 시집올 때 화장대 값으로 가져왔던 얼마되지 않은 금액을 내놓았다. 이 돈으로 살아보자는 말에 남편은 밑천이 적게 드는 세탁업을 시작하자고 했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하여 세탁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다리미 하나, 다림질판 하나, 옷걸이 몇 개, 재봉틀은 시집올 때 가져온 것 등이 전부였다. 남편은 다림질을 배우고 나는 수선, 염색, 짜깁기, 세탁 등을 배우면서 2평 남짓한 가게에 '형제세탁소'라는 간판을 걸었다.

그러나 비만 오면 수몰지역에 으슥하고 한적한 곳이라 거의 손님이 오지 않았다. 당장 끼니가 걱정이라 하는 수 없이 나는 아이들을 등에 업고 남의 집 품팔이, 관공서 이불빨래 등을 했다. 배가 고프면 아이에게 먹일 젖이 나오지 않으니 보채는 아이를 달래며 허기진 배에 고무줄을 더 땡기며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을 볼 때마다 눈을 반 정도 감으며 침을 한 번 삼키면서 배고픔을 참았다. 일을 해주고 받은 삯으로 종이 봉투에 혼합곡 반되를 사서 밥을 지을 때 이끼니 한 줌, 저 끼니 한 줌, 나누다 보면 반되의 혼합곡 쌀은 보기만 해도 줄어진듯 싶었다. 시집올 때 해가지고 온 옷들은 다 낡아서 입을 옷이 없어 부잣집 쓰레기통에서 깜깜한 밤에 주어다 입어도 부끄러운줄 몰랐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었지만 배가 고파 젖이 안나올 때는 진정 가슴이 저몄다.

생활이 너무나 어렵자 남편은 교회에 나가면 신도들이 도와준다고 하여 나를 몇 번이고 설득시켰지만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아 싫다고 하여 여러번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던 1987년 이웃집 보살님 소개로 향림사에서 방생이 있다 하여 남편을 졸라 방생을 따라 갔다. 방생의식에서 큰스님 법문중 "효는 만선의 기점, 효를 떠나서는 부처님 법을 찾지 말라"는 말씀과 가정이 우선이 되어야 하며 종교는 두번째라는 말씀이 특히 인상깊었다. 그리고 방생이란 이타주의로 미물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길래 비록 가난한 환경에 쩌든 나였지만 새로운 삶에 눈을 뜬 것 같았다. 그때부터 나의 인생관이 달라졌다. 환경을 탓하고 남편을 원망하던 내가 내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염색, 짜깁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노력한 결과 나날이 세탁소 손님이 늘기 시작하더니 가게 수입도 꽤 많아졌다. 남편과 나는 수입의 90%를 저축하기로 마음먹고 열심히 생활했다.

한 달에 두번씩 초하루법회나 보름법회에 참석하며 부처님 공부에 환희심이 났을때 남편은 "교회에 나가라고 할 때는 가지 않더니, 왜 그렇게 자주 절에 가느냐"며 화를 내곤 했다. 그리고는 만약에 또 절에 나가면 이혼을 하든가, 절에 그만 다니든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윽박질렀다.

어떠한 대답도 할수 없었던 나는 감히 큰스님을 친견하여 "절에 다니고 싶은데 남편이 나가지 말라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여쭈었다. 스님은 〈봐서 행하는 길〉 책을 주시면서 행동으로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에 집에 와서 두 다리를 뻗고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다. 그날 밤 잠을 자다가 문득 잠이 깨어 옆을 보니 스님이 주신 책을 남편이 읽고 있는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은 집안일만 손색없이 해놓고 다니라고 허락했다. 나는 너무 기뻐 남편에게 합장하며 "감사합니다"라고 하자 남편은 고개를 돌려 빙그레 웃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단칸방 문옆에 108염주 걸어 놓고 아침예불을 올리며 부처님께 남편이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 남편은 예불을 모시는 것은 좋으나 가게집이니 소리없이 마음 속으로 하라고 했다. 소리없는 예불과 발원을 눈물과 한숨으로 기도한지 3년만에 남편이 나에게 하는 말이 그렇게 불교가 좋으냐며 묻자 나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울고 말았다.

그뒤 1991년 8월 향림사에 광주불교대학이 설립되어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하길래 남편에게 사정하여 입학하게 되었다.

입학하던 날 관세음보살님께 '제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으니 제발 2년간 결석하지 않고 공부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발원을 했다. 불교대학에 입학하여 처음에는 교수님의 강의내용이 생소하고 이해하기가 힘들었지만 공부를 하다보니 합장의 의미, 삼배 뜻, 오체투지, 삼학, 육바라밀, 인과사상 등을 배우면서 부처님 진리를 터득하기 시작했다. 세탁업도 항상 '고객이 나'라고 생각하며 생활하다 보니 뜻하지 않게 수입이 늘어나서 조그마한 상가를 사서 이층집을 지어 예불방도 하나 만들고, 아이들 방도 하나씩 마련해 주었다. 아이들 삼남매를 키우면서 유치원은 물론이고, 학원 한 번도 보내지 못하고 대학 입학할 때까지 5인가족이 단칸방에서 밥상을 책상삼고 발을 포개고 잠을 자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던 아이들. 텔레비전도 대학가서 아르바이트로 장만하였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말없이 자라준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하기 그지 없었다.

이층집을 지은 우리 온가족은 지난날을 회상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행복한 나날이 되어 이제는 살만하겠구나 하며 한숨을 돌릴만 하니 기쁨도 잠깐 남편에게 당뇨병이 오고 말았다. 당뇨병은 밥을 많이 먹어서는 안되는 병이었다. 지난날에는 밥이 없어서 먹지 못했고 이제는 살만한데도 먹어서는 안되니 정말 가슴이 아파 한숨밖에 안나왔다. 남편의 체중이 68kg에서 55kg으로 감소되면서 기운이 없어서 세탁업을 하기가 힘들어졌다. 전국에서 좋다는 한약과 처방약을 다 써보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 혈당이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기에 이웃에 있는 내과병원에서 알약을 3일분씩 지어 먹기 시작했다.

그날이 지장재일이어서 지장전에 가서 지장보살님께 엎드려 울면서 1시간 정도 참회기도를 올리고 무거운 걸음으로 집에 돌아와 잠을 자는데 꿈에 왼쪽 귀에서 "걱정마라, 걱정마라" 두 번 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아침에 우연히 신문을 펼쳐 읽는데 '댁의 비방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에 어느 아주머니의 건강고단백 식품이 기재되어 있어서 그 처방대로 만들어서 먹이기 시작했다. 나는 남편에게 건강이 나쁜 것도 전생의 업보이니 참회기도를 아침에

佛紀 2543年 (己卯年) 謹 · 賀 · 新 · 年

시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삼선승가대학

1999학년도 신입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자 격 : 98년도 봄 수계자(행자교육 14기)까지 타 승가대학을 2년 이상 휴학한 학인
▶모집학과 : 사미니과 OO명 ※편입생도 약간명 모집함
▶시험과목 : 서류심사, 필기시험(초발심자경문, 불교기초지식, 사미니율의), 면접
▶구비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이력서, 승적재적증명서, 은사스님 추천서,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본, 본인도장, 증명사진 3매
▶준 비 물 : 장삼, 오조가사, 필기도구
※95년이후 수계자는 사미니의제 착용
▶시험일시 : 1999년 1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문 의 처 : 서울 성북구 동선동 3가 255
삼선승가대학 ☎ (02)923-0582
▶교 통 편 : 전철→ 4호선 성신여대(돈암동)역 하차. 버스→ 미아리 고개 하차

[강 의 내 용]
◆내전 : 치문, 도서, 서장, 선요, 절요, 대총상, 능엄경, 기신론, 금강경 오가해, 원각경, 80화엄경
◆외전 : 동양철학개론, 인도 · 중국 · 한국불교사, 불교교리사, 선종사, 불교윤리학, 조계종사, 불전개설, 한문, 외국어
◆기타 : 꽃꽂이, 지공예, 염불

삼선승가대학장 묘 순

주식회사 아라 종합건축 · 건설

대표이사 · 건축사 김 기 상

직 원 일 동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8-9(장석빌딩 3층)
TEL : 02)555-1567~8
FAX : 02)3443-7894~5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종 정 영 산 일 공

종정사서실장 임 체 관

원로원 원 장 황 법 운
소정원 원 장 송 보 인
종의회 의 장 조 성 관
부 의 장 김 인 관
총무원 총무원장 최 법 륜 총무부장 장 체 승
총무국장 이 체 인 재무부장 박 대 월
사회부장 임 보 광 사업부장 구 성 도
사업국장 강 체 도
포교원 원 장 조 성 견
부 원 장 노 정 관
부 장 주 체 법
교육원 부 장 이 체 원
국 장 이 진 운
규정원 원 장 민 성 운
국 장 박 체 성
문화원 원 장 김 선 진

각시도 종무원
인천종무원장 장체승 경기종무원장 차성인 충남종무원장 김체의
전남종무원장 이정광 경북종무원장 손지관 강원종무원장 류무송
제주종무원장 한진성

종립 동원불교대학 학장 김 법 장

▶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704-39
전화 : 02)857-5094 / FAX : 02)859-1042